



연남동 구간

약 1.2km (도보 약 30분)

연남사거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숲길을 말한다. 숲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있는 기차길과 간이역을 닮은 심터를 보며 이 길이 과거 철길이었음을 알 수 있다. 길게 뻗은 은행나무 행렬과 860m의 긴 물결을 따라 걷다보면 경의선 숲길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.

주요장소
잔디마당 / 은행나무길 / (세교천을 재현한) 물길 / 철길

와우교 구간

약 370m (도보 약 15분)

홍대 앞 와우교부터 서강대역까지의 숲길이 '와우교구간'이다. 이곳은 곳곳에 남아있는 철길과, 기차가 운행되던 당시 '땡땡거리'라 불리던 철도건널목을 그대로 복원해놓고 있어 여러 구간 중에서도 경의선에 대한 향수를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다.

주요장소
땡땡거리 / 책거리 / 전망데크 / 기차길 옆 예술마을

신수·대흥·염리동 구간

약 1.3km (도보 약 30분)

마포구 신수동 일대 구간으로 선동물천, 무쇠막 등 마을의 옛 기억을, 대흥동 일대 구간으로는 봄철에 벚꽃을 만끽할 수 있다. 또한 염리동 일대 구간으로 메타세콰이어길과 느티나무 터널이 있는 녹색 심터이다.

주요장소
철길 소년·소녀상, 간이역 심터 / 선동물천

새창고개·원효로 구간

약 960m (도보 약 25분)

공덕역에서 효창역까지 이어진 구간으로 구불구불한 고갯길과 탁 트인 전망 테라스, 자연암석 등 옛 정취를 맛볼 수 있다. 원효로 구간은 용산구 문화센터까지 이어진 구간으로 경의선 숲길의 시작점이다. 경의선 철길의 오랜 역사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.

주요장소
버드나무심터 / 히스토리 벽 / 숲길사랑방

